

내년 초 '나비엔 매직' 론칭... 주방가전 글로벌 기업 도전장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주방기기 사업 확장을 위한 '나비엔 매직'을 내년초 본격 출범하며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한다.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했던 SK매직의 가스·전기 쿡탑, 전기오븐 분야를 인수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 판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동나비엔이 난방·온수, 냉방·공조, 스마트홈 등에 이어 주방가전 시장 진출까지 예고하면서 '생활환경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경동나비엔이 북미, 러시아, 중국 등에도 온수기, 보일러 등을 대거 수출하고 있어 향후엔 관련 판매망을 통해 'K-주방가전'의 해외 추가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주방기기를 본격 생산하기 위해 경기 평택공장에 설비 이전·증설 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전기쿡탑과 전기오븐, 가스쿡탑 생산을 위한 일부 인증 및 인허가를 취득했고 현재 공장



경동나비엔이 내년 초 '나비엔 매직'을 론칭하고 주방기기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SK매직 가스·전기쿡탑 등 인수 경기 평택공장 설비 증설 막바지 작년 매출액의 68% 해외서 거둬 향후 주방기기 글로벌 진출 기대

심사와 제품별 안전인증 양수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올해 안에 인증을 끝내고 '나비엔 매직' 론칭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5월 SK매직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투입해 주방기기 영업권을 인수한 바 있다. 지금도 영업 총판 형태로 SK매직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판매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자사의 주방기기 전문 대리점 뿐만 아니라 쿠팡 등 온라인 판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식 온 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 외에 네이

버 스토어 등으로 판매 채널도 넓힌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비엔 매직 출범 이후 직접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선 경동나비엔이 A/S를 진행한다. 물론 기존 SK매직 제품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1조2043억원의 매출 가운데 전체의 67.6%를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만 660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3897억원)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멕시코에 각각 법인을 두고 'K-난방기'로 시장을 꾸준히 넓혀 온 결과다.

주방기기 진출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경동나비엔은 냉방기기도 새로 선보인다.

현재 자체 개발 중인 콘텐츠싱어어컨은 냉방, 환기, 공기청정, 제습 등 복합 기능을 구현한다. 이 제품은 특히 경동나비엔의 콘텐츠싱 기술과 지역난방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 대비 42%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자회사인 경동에 버린을 통해 후드 전문 업체 '리베첸'의 자산을 인수하며 기존에 판매하던 '3D 에어후드'에 더해 주방후드 라인업도 강화했다. 이처럼 주방기기 사업에서 소비자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이유는 쿡탑과 후드, 환기청정기를 연계해 요리매연 등의 유해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 임원은 "올해 내로 SK매직의 영업권 인수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나비엔 매직'을 성공적으로 론칭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주방기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고객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해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9535억원, 영업이익 988억원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순항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인니 최초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 개소

이노비즈협과 ODA방식 추진 이룬·실습장 보유... 전문인력 양성 '韓 제조혁신 성과 해외이전 첫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위치한 비누스대학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열었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구축 경험이 풍부한 국내 공급기업들의 IT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 현장 공정개선과 장비 고도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곳은 이론교육 전용 강의시설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과정 및 운영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초 스마트팩토리 전문 교육센터다. 향후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팩토리에 적용되는 솔루션의 이해, 우리나라 구축사례

소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센터 내에는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솔루션 상시 전시 공간도 마련될 예정인 만큼 공급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전수 사업은 선진 IT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달성한 우리의 제조혁신 성과를 해외에 최초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중소 제조현장의 생산성 혁

신과 나아가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에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센터가 관련분야 인재육성의 역할을 넘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스마트기술을 확산하는 기지로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세이프온 3종 출시

귀뚜라미가 성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세이프온(SAFE On) 일산화탄소 경보기' 3종을 출시했다.

2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세이프온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용품 책임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KC 인증)을 획득해 신뢰성을 공인 받았다. ▲배터리 타입(KGD 500B) ▲플러그 타입(KGD 500) ▲플러그 일체형 타입(KGD 30P, KGD 600P) 3종으로 구성돼 가정뿐만 아니라 캠핑장, 텐트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ESG 경영' 美 LACP 대상

6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서 만점

CJ대한통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올해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최근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최한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Spotlight Awards)'에서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라이트 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로,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업 및 기관에서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어워즈에서 CJ대한통운의 보고서는 총 6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내용 ▲디자인 ▲명확성 ▲

적합성 등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CJ대한통운은 대상 수상 요인으로 공시범위 확대, 친환경 경영 등 전년 대비 향상된 보고서 콘텐츠를 꼽았다.

CJ대한통운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해 보고 사업장 범위를 전년도 본사에서 올리는 본사 포함 총 14개 연결종속법인으로 확대했다. 이어 기후 및 생물다양성 공시 강화 차원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재무영향도 등을 공개했다.

신규 콘텐츠를 통한 친환경 경영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CJ대한통운은 국제 기준 중대이슈 리스크와 기회 분석 내용을 새로 공개하는 한편 친환경 비즈니스 혁신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임팩트 스토리' 코너를 신설했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호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달 29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개최한 신입직원 임용식에서 신규 입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31명 임용

6일까지 일주일간 연수 후 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하반기 31명의 신입직원을 뽑고 임용식을 가졌다. 2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진행된 신입직원 선발은 행정사무관 28명, 행정사무관채권관리 1명,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고졸 인재 등을 두루 선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전문직

경력직원 3명도 채용을 끝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했다. 신입직원 31명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일주일간 연수과정에 참여한 후 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공단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단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SGC솔루션 '냉장고 리턴 챌린지' 5일까지 체험단 모집

SGC솔루션이 글라스락 공식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채널에서 오는 5일까지 '냉장고 리턴 챌린지' 체험단을 모집한다.

2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체험단 모집은 냉장고를 정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리밀폐용기와 냉장고 텀데이블을 통한 냉장·냉동고 정리 및 공간 활용 등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체험단 신청 방법은 글라스락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채널에서 구급품을 통해 냉장고 정리에 관한 고민을 담은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각 채널별 총 20명을 선발해 '모듈러', '퓨어 샌드핑크' 등 글라스락 유리밀폐용기와 냉장고 정리 테이블 구성의 제품들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